



행복한 충북교육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013. 12. 10.(화) 11:0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교육시책연설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2013년 한 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교육애로 충북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충북교육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우리교육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160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충북 학생들이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충북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상위의 위업을 달성하며, 충북교육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보면, 중학교는 1.1%, 고등학교는 0.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보통학력이상 학생은, 중학교 81.7%, 고등학교 9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 충북이 상당한 감소를 보인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학교가 지난해 2.2%에서 올해 3.3%로 증가했고, 고등학교도 3%에서 3.4%로 증가하였으나, 우리 도는 지난해 중학교 1.4%에서 올해 1.1로, 고등학교는 1%에서 0.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 온 기초학력 보정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선생님들도 기초학력책임지도가 교실수업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학생을 지도해 온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학력 보정체제의 정착은,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수월성 교육, 그리고 창의적 인재 육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온 우리 학생들과 흔들림 없이 학생을 보살피고 지도해 준 교직원, 성원해 주신 도민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1, 2, 3분기 모두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도민을 아끼고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를 우리 교직원들이 모범적으로 보여 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급식 식중독 6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여, 우리교육청의 학교급식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국FFK전진대회와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어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도 교원 17명이 수상하여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북교육이 교육의 전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도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헌신과 열정으로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온 한편, 다문화가정과 해외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다문화 학생은 모두 2,500여 명으로 작년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보듬고 아끼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씩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초·중등 다문화 예비 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교육 지도와 교육정보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교육 소식지 ‘위드(WITH)’와 ‘취학·진학·진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WITH: ‘We are In Total Harmony’

소식지 ‘위드’는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국어로, 진로 자료집은 베트남어, 몽골어 등 7개 국어로 제작하여 모든 다문화가정에 보급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교육은 해외교포 자녀와 교류협력국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지원을 강화하여 왔고 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교포 자녀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매년 뉴질랜드, 캐나다, 하와이 등 교포자녀를 초청하여 한국 문화 이해와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교육청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반기문 영어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해마다 UN본부와 반기문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900여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고, 입상자 180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과 비전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페루, 파라과이, 네팔 등 해외 ‘한글학교’에 2009년부터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글학교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1,925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는 1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방문해 본 결과 대다수의 한글학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빈약한 교재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글 교육자료와 교과서, 역사자료, 컴퓨터, 다국어 세계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표기된 『동해·독도 표기 다국어 세계지도』를 9,000여부 제작하여 20개국에 있는 한글학교와 현지학교 등 1,300여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세계지도 표기 시 ‘동해’보다 ‘일본해’로 표기되는 비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동해’ 표기 세계지도는 해외 한인자녀들에게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큰 기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의 한글사랑관에서 제작하는 『한글소식지』도 매년 6회에 걸쳐 회당 1,200부씩 7,200부를 세계 100개국 1,100여 기관과 한글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는 물론 해외교포와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해외에서 한글교육 교재로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생님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도 그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12월 2일에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요크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치코대학교와는 26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도 가장 긴 교류 역사이며, 지금까지 영어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교류를 통해 도시 발전에 기여한 감사의 표시로, 지난 12월 3일 우리교육청을 대표하여 제가 치코시로부터 'Key to the city' 증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교육청은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교육정보화 컨설팅 및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2011년부터는 전략적 투자 대상국 중 하나인 파라과이에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연수와 교육기자재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1962년 한-파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전통 우방이며, 1965년부터 시작된 한인 이민자가 최초로 첫발을 디딘 역사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문맹률이 70%가 넘고 교육시설이 지극히 열악함은 물론, 체계적인 교원연수 시스템이 없어 우수교원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에는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파라과이 교원종합대학교 총장을 만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파라과이 교원종합대학교에 한국어교육과가 개설되어 신입생 15명이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충북교육의 힘으로 우리의 국어를 세계의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길을 텃다는 점에서,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충북교육가족의 교육사랑은, 우리의 이웃인 농민과 농촌사랑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과 이웃돕기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김장철에는 ‘교육가족 농촌사랑 배추 50만 포기 김장 담그기’ 운동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어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체험중심의 다양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진로체험 중점학교 및 동아리, 진로체험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천·체험 중심의 공감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녀의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갖기와 사랑의 효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신설 및 이전, 장애학생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 시설을 마련하여, 행복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635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119억원 대비 2.4%인 5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이전수입 480억원과 자체수입 96억원을 증액하고, 차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지방교육채를 세입조정하여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467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및 교육일반 부문에 49억원으로,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개축, 기숙사 및 다목적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영어체험 및 맞춤형교육지원센터 신축, 화장실 확충 및 보수 등 학생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금년에 설계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교육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가슴에 새기고,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벅찬 희망으로 밝아오는 2014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0.

충청북도교육감 이 기 용